

民譚 ‘ ’ 韓・日 比較

民譚 ‘선녀와 나뭇꾼’의 韓·日比較

成 者 說*

I. 序 言

‘선녀와 나뭇꾼’의 이야기는 이른바, Swan maidens에 속하는 것으로 이것은 그 類話가 全世界의으로 分布되어 있음은 周知의 사실이다. 여기서는 그 중 韓國과 日本에 傳承되어 오는 이야기를 대상으로 하여 살피고자 한다. 分布로는 汎世界的이지만 本稿에서는 資料의 求得難도 있고 하여 東南亞 諸地域의 資料를 補助 資料로 하여 이야기를 展開하고자 한다.

지금 잠시 東洋에서의 分布 狀況을 보면, 日本의 全土, 北쪽으로 사할린 *Sakalin*, 그리고 北海道의 아이누 *Ainu* 族에게도 傳承되고, 시베리아 *Siberia*, 滿洲, 中國의 山東半島로부터 주로 沿岸을 따라 南下하여 廣東地方에 이르고, 다시 安南·필리핀 *Philippine* · 자바 *Java* · 보르네오 *Borneo*等 諸島에, 그리고 太平洋의 뉴 헤브리데스 *New Hebrides* 島까지도 傳承의 報告가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民譚 혹은 傳說로 傳承되어, 一般的으로는 ‘金剛山 八仙女’¹⁾ 로 알려져 있으며, 그 分布도 거의 全國의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日本에서는 ‘羽衣傳說’ 또는 ‘天人女房’ 등으로 알려져 있는 이 民譚을 對象으로 比較하려는 것이 本稿의 意圖이며, 이 作業을 遂行함에 있어 本發表會의 趣意에 副應하여 新羅文化와 日本文化의 接觸樣相을 前提로 하고자 한다. 이는 本稿의 경우만이 아니라 적어도 上古時代에 背景을 둔 것으로서 云謂될 때에는 應當 거쳐야 할 節次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더우기 本稿의 論旨 展開에 있어서는 이 兩國 文化의 交涉(接觸)樣相은 상당한 論證的 구실을 하고 있음에 큰 힘을 입을 것이다.

論旨 展開에 도움을 주고자, 補助 資料 및 篇을 손에 닿는 것으로 使用하였다.

II. 資 料

1. 正 資 料

* 師範大學 國語教育科 教授

1) 崔常壽: 韓國民間傳說集(서울: 通文館, 1958), pp. 437~39. #288 <선녀의 깃옷>

〈韓 國〉

(1) 나뭇꾼이 사냥군에게 쫓기는 사슴을 숨겨 주었더니, 사슴은 報恩으로 仙女들이 목욕하고 있는 장소를 알려주었다.

사슴이 알려준 곳에 가서 仙女의 깃옷(羽衣)을 감추었더니 목욕이 끝난 다른 仙女들은 모두 昇天했으나 깃옷을 잃은 한 仙女만은 가지 못하여 나뭇꾼은 그녀를 데려다 아내로 삼았다.

아내가 된 仙女는 아이를 둘(셋) 낳았는데, 어느날 나뭇꾼이 仙女에게 깃옷을 보이자 仙女는 입을 보는 양 하다가 그대로 아이들을 데리고 昇天했다. 사슴을 만났더니, “아이들 셋(넷) 낳을 때까지 깃옷을 보이지 말라고 했는데, 그전에 보여서 가버렸다.” 하고 이제 仙女들은 안 내려오고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올리니, 그것을 타고 하늘로 따라 올라가면 妻子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알려 주었다.

사슴이 알려 준 대로 하늘에서 내린 두레박에 올라 한 동안 妻子와 행복하게 살았으나, 地上의 어머니가 그리워져서 아내의 주선으로 龍馬를 타고 내려오는데, 이 때 아내가 절대로 龍馬에서 내리지 말라고 부탁을 했다. 地上의 어머니가 아들이 좋아하는 호박죽(팥죽)을 쑤어 먹다가 뜨거운 죽을 흘리는 바람에 龍馬가 놀래어 나뭇꾼은 말에서 떨어지고 龍馬만 그냥 昇天해 버려서, 지상에 홀로 남은 나뭇꾼은 언제나 하늘을 쳐다보며 슬퍼하다가 죽었다. 그리고는 수탉이 되어 지금도 지붕 위에 올라 하늘만 바라본다.²⁾

(2) 조실부모하고 너무나 가난해서 장가도 들지 못한 채 남의 집살이를 하는 한 총각이 산에 풀을 베러 갔다가 사냥군에게 쫓기는 노루 한 마리를 살려주었더니 노루가 총각에게 장가가는 법을 알려 주었다.

노루가 알려 준 대로 칠월 칠석날 하늘에서 七仙女가 내려와 목욕하는 곳에 가서 일곱째 선녀의 바지를 감추었더니 그 仙女만 昇天하지 못하여 내외가 되어 살았다. 노루가 아이 셋을 낳거든 옷을 주라고 해서 아이 셋 낳은 후 옷을 주었더니 칠월 칠석날 아이 셋을 안고 昇天하며 남편도 함께 가자고 했다. 하늘에 올라 함께 잘 살다가 下界에 있는 삼촌·숙모가 보고 싶어 아내의 허락을 얻어 下界에 내려 오는데 이때 아내가 절대로 닭국을 먹지 말라는 당부를 했다.

下界에 내려와, 삼촌 숙모가 끓여 주는 닭국을 먹고는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자 부인이 하늘에서 박씨 하나를 내려 주었다. 그 박이 자라 줄기가 하늘까지 닿게 되어 그 줄을 타고 반쯤 올라갔는데, 밑에서 숙모가 물을 끓여 박줄기에다 한 바가지를 부으니까 줄기가 쓰러져서 떨어져 버렸다. 떨어지면서 그 총각은 닭으로 변신을 했는데, 장닭이

2) 孫晉泰：朝鮮の民話(東京：岩崎美術社，1974)，pp. 60~66. # 48 〈雄鷄傳說(羽衣傳說)〉

을 때 ‘꼬꼬구불래’ ‘꼭꼭굴굴’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³⁾

〈日 本〉

(1) 아내를 얻기 바라는 어부(나뭇군)가 신의 계시에 의하여(혹은 어느 動物을 살려 줌으로 해서, 또는 우연한 기회에) 연못(혹은 강, 호수 또는 바닷가)에 仙女(때로는, 複數)가 내려와 목욕하는 것을 보고는 한 仙女의 옷을 훔쳐내어 그 女人을 집에 데려와 아내로 삼았다.

仙女를 아내로 맞아 아이를 낳았는데(1,3 또는 여럿) 아내는 아이들의 암시로(혹은 남편의 不注意로) 전의 그 깃옷을 발견하여 그것을 입고 혼자(혹은 아이들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갔다.

남편은 아내의 지시대로 대나무(혹은 표주박넝쿨)를 심어 그것을 타고 하늘에 올라 장인(또는 장모)의 여러 시험을 받게 되었는데, 아내의 도움으로 훌륭히 課題를 치워 내고 아내와 再結合하였다.(혹은 맨 마지막 시험에서 실패하고 아내로부터 떨어졌다).

(2) 옛날 젊은 사냥꾼 이카도미(伊香刀美)가, 아득한 서쪽 하늘에서 여덟 마리의 백조가 산을 넘어 날아와서 이 산골짜기의 조그마한 호숫가에 내리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런데 ‘백조로서는 너무 크다’라고 이상하게 생각한 이카도미는 살짝 나무 뒤에 숨어서 가까이 갔다. 그러니까 여덟명의 天女가 깃옷을 벗어 나뭇가지에 걸고 호수에 들어가 목욕을 하는 것이었다. 天女들은 보는 사람이 있다고는 생각지 않고 순진하게 장난치며 헤엄쳐 다니고 있었다. 그 자태의 너무나도 아름다움에 이카도미의 가슴은 사랑의 정이 거세게 끓어 올랐다. 그는 데리고 있던 흰 개를 보내어 깃옷을 하나 훔쳐와 감추었다. 얼마후 天女들 일곱명은 깃옷을 다시 몸에 붙이고 하늘로 향하여 날아 돌아갔으나 막내 동생 하나는 깃옷이 없어져 날아오를 수가 없었다.

마침내 그녀는 지상에 머물러 이카도미의 아내가 될 것을 응낙하였다. 두 사람 사이에서 오미시루(音美志留), 나시도미(那志登美), 이제리히메(伊是理比昧), 나제리히메(奈是理比賣)의 네 아들이 태어났다. 이들이 이카고(伊香)족의 시조들이다.

그런데 그 네 아들을 낳은 후에 그 어머니인 天女는 드디어 하늘의 깃옷을 찾아 내었고, 그것을 몸에 붙이자 재빨리 하늘로 날아가 버렸다(네 아이들은 지상에 남겨 둔 채로)⁵⁾

3) 趙東一：韓國口碑文學大系, 7~1(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0), pp. 268~271. # 95〈나뭇군과 선녀, 노루이야기〉(1979. 2. 25. 채록, 월성군 현곡면 가정 2리 갖질, 이선재, 여·61)

4) Seki Keigo: *Types of Japanese Folktales* (Tokyo: Asian Folklore Studies Vol. XXV, 1966), p. 79. # 149 〈The Wife from the Upper World〉

5) 朝鮮文化社：日本文化と朝鮮(東京：新人物往來社, 1975), p. 145.

2. 補助資料

1) 蒙古

사냥군이 새를 잡으러 나섰는데, 가까운 湖水로 날아오는 세 마리의 白鷓을 발견한다. 그 새를 따라가 보니 水面에 내려 앉자 깃을 벗고 모두 女子가 되어 헤엄을 친다. 사냥군은 그 중 한 마리의 깃을 감추고 돌아가지 못하는 女人을 붙잡아 데리고 와 아내로 삼는다. 세월이 지나 어언 6 男妹를 둔 어느날, 아내는 남편에게 강한 소주를 빚어 마시게 하여 大醉하자, 그 깃옷의 行方을 묻는다. 남편은 생각없이 일러준다. 그것을 받은 아내는 순간 鶴鳥로 변하여 굴뚝으로부터 달아난다. 6 남매 중 한 아이는 소주를 먹고 있다가 어머니를 붙들려고 다리를 잡았는데, 그 손이 더러웠으므로 지금도 鶴鳥의 다리는 검다 한다.⁶⁾

2) 中國

한 젊은이가 물소를 끌고 다니며 키웠으므로 牽牛郎이라 하였다. 어느 날 그 물소가 견우랑에게 이런 말을 했다. “초원 남쪽 강가에 七仙女가 목욕을 하고 있으니 그들이 벗은 옷 가운데서 한 벌을 감추어 두면 아내로 맞이할 수 있다” 견우랑은 물소의 말대로 그곳에 가서 한 벌을 훔쳐 집에 와 기둥 밑에 파묻어 버렸다. 그 깃옷을 잃은 仙女는 하늘에서 베를 짜는 河織女였다. 깃옷을 빼앗기고 어쩔 수 없이 견우와 내외가 되었다.

얼마후 물소는 나이가 먹어 죽게 되었다. 그 때 다시 물소는 견우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 가죽을 벗겨 그 안에 모래를 가득히 넣고, 고삐를 풀어 주머니를 만들어 항상 어깨에 메고 있으면 어떤 재난이라도 극복할 수가 있다.” 견우는 물소가 시키는 대로 하였다. 2, 3년이 지났다. 아이도 남매가 태어났다.

어느날 직녀는 깃옷 감춘 곳을 또 물었다. 세월이 흘렀으니 괜찮겠지 생각하고 견우는 사실대로 말했다. 직녀는 곧 그것을 꺼내어 몸에 감더니 순식간에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 견우는 어이없이 등을 두들겼다. 그것이 물소가죽 주머니를 건드린 것이 되어 아이들을 데리고, 구름을 타고 직녀의 뒤를 쫓았다. 직녀는 머리의 금비녀를 뽑아 뒤로 던졌다. 그것은 한 줄기의 銀河를 이루었다. 그러자, 견우 등의 물소가죽 주머니에서 모래가 쏟아져 나와 한 줄기 독이 생겼다. 직녀는 다시 금비녀를 뽑아 던졌다. 견우는 묶은 끈을 던져 직녀의 머리에 걸었다. 이렇게 싸울 때 天帝의 使者가 나타났다. “天帝의 명령이다. 견우는 금후 河東에, 직녀는 河西에 살면서 해마다 七月七日날밤에 한번 만나기를 허락한다.” 그 후로 견우와 직녀는 은하수(직녀가 만든

6) 孫晉泰：朝鮮民族說話의 研究(서울：乙酉文化社，1947)，pp. 196~197.

天河) 양편에 자리잡고 살며 七月七日 저녁에 한 번씩 만나게 되었고, 이날 비가 오는 것은 두 사람이 헤어지기 안타까와 흘리는 눈물이라 한다.⁷⁾

3) 安 南

나뭇꾼이 仙女들의 목욕 장면을 보고 그 중 한 仙女의 깃옷을 몰래 훔쳐 아내로 삼는다. 아이가 태어나 세 살이 된다. 어느날, 아내가 뒤주의 쌀을 팔기 위하여 바닥까지 모두 퍼낼 때, 그 바닥에 감추었던 깃옷을 발견한다. 仙女는 아이 옷에 머리빚을 매어 두고 昇天한다. 남편이 아이를 안고 우물가에 갔을 때 仙女의 下女가 물을 길러 온다. 아이에게 물을 얻어 마시게 하자. 머리빚이 물둥이에 떨어진다. 하늘에 가 그 빚의 유래를 물은 仙女는 사정을 알게 된다. 仙女는 下女에게 呪布를 주어 남편을 데려오게 한다. 남편은 하늘에 올라 아내에게 돌아가자고 권하여 아내는 부처의 허락을 받게 된다. 그동안 남편과 아이를 먼저 地上에 보내기로 하고, 땅에 닿았을 때 신호로서 북을 두 번 울리면 下女가 위에서 줄을 끊기로 한다. 仙女는 아이에게 북을 타고 내려오는 도중에 먹을 것을 준다. 하늘과 땅 중간쯤 내려왔을 때 까마귀떼가 몰려와 아이가 북에 떨어뜨린 먹이의 부스러기를 쪼아먹는 바람에 북소리가 울려 줄이 끊어지고 父子는 바닥에 떨어진다. 그리고 놀란 까마귀 울음소리에 天帝가 그 까닭을 仙女로부터 듣고 그녀를 벌준다. 저녁 셋별과 새벽 셋별이 되어 까마귀가 다리를 걸어주면 1년에 한번, 7월 15일에 만난다 한다.⁸⁾

4) 보르네오 Borneo

젊은이가 사냥을 나선다. 길에서 개미가 발목을 물어 죽이려니까 그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약속으로 살려준다. 다시 한 마리의 새, 멧돼지, 원숭이 그리고 자기 뺨에 걸린 물고기까지 모두 살려준다.

개울가에서 仙女 몇 사람이 목욕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 중 가장 예쁜 仙女의 옷을 훔치고 그를 아내로 맞아들인다. 둘 사이에는 아이가 둘이 생기고, 남편이 사냥갈 때는 집에서 가장 높은 기둥 속에 깃옷을 감춘다. 아들이 열 살 되었을 때 그에게 깃옷을 잘 간수하라고 이른다. 어느 날 아내는 그 깃옷을 찾아 昇天한 뒤에 남편이 알고 아들을 매질한다. 아내를 찾아 데려오기 위하여 배를 한 척 지어 아들과 함께 바다로 나가 수평선너머 하늘로 가 천신만고 끝에 아내의 집을 찾는다.

아내의 어머니는 찾아온 사나이(남편)에게 어려운 과제를 부과하나, 개미·멧돼지·물고기·원숭이들이 加勢하여 해결해 줌으로써 결혼식을 올린다. 사나이는 地上으로 돌

7) 李周洪譯編：中國民譚選(서울：正音社，1975) pp. 17~21. <견우직녀>

8) 小澤俊夫編譯：世界の民話 10(東京：ぎよりせい，1978)，pp. 21~24. # 6 <よいの明星と明けの明星>

아갈 것을 장인에게 졸라 내려오나 자기만 돌아오게 된다.⁹⁾

5) 뉴 헤브리데스 *New Hebrides* 島

옛날, 仙女들이 地上에 내려와 池에서 목욕하고 있는데, 한 사나이가 이 광경을 보고 깃옷을 훔쳐 집의 큰 기둥 밑에 감추고 다시 가보니, 다른 仙女들은 다 돌아가고 단 한 仙女만 남아 있었다. 그는 그녀를 아내로 하여 아이를 낳는다. 어느 날 남편과 함께 밭으로 김을 매러 갔다가 잡초와 잘못 혼동하고 감자를 뽑아 버리어 남편 형제로부터 심하게 꾸지람을 듣는다.

아내는 집에 돌아와 기둥에 기대어 앉아 울었는데, 눈물이 그 기둥 밑의 흙을 휩쓸고 흘러가 감추었던 깃옷을 발견하게 된다. 아내는 기뻐하며 아이를 데리고 昇天한다. 남편이 돌아와 보니 아내가 없으므로 구름으로 하늘까지 닿는 사다리를 건다 허니까, 하늘에서 나무뿌리가 내려오므로 그것을 타고 하늘로 오른다. 그가 아내를 비난하니, 남편을 먼저 내려가게 하고 아내는 아이와 함께 그 뒤를 따라 내린다. 그리고, 도중에 도끼로 나무 뿌리를 잘라 남편을 떨어뜨리고 아이와 함께 들어서 다시 하늘로 돌아간다.¹⁰⁾

6) 시베리아 *Siberia*

에펜族 사이의 魔法民譚에 <원자가 살았었다>는 것이 있다. 湖水에서 목욕하고 있는 새들을 보고 원자는 그 새 중에서도 가장 젊은 한 마리의 옷과 깃을 훔친다. 새는 그의 아내가 된다. 이 새는 天上界에 사는 魔女로서 여러가지 奇蹟을 행한다. 遊牧民의 사나이들은 원자를 시기하여 예쁘고 영리한 아내를 빼앗으려 한다. 그래서 원자에게 어려운 문제를 내걸어 골탕먹인다. 얼룩점이 있는 꿈을 生捕하여 오라든가, 반점이 있는 물개를 잡아 오라든가 하는 따위였다. 아내는 원자를 도와 이러한 문제들을 해낸다. 결국은 이들 나쁜 人間들로부터 헤어지려고 어느날 원자에게 자기 깃털을 한 개 주었더니 天上界로 돌아가고 말았다.¹¹⁾

7) 清太祖說話

太祖 高皇帝 姓愛新覺羅氏 先世發祥於長白山 山二百餘里 綿亘千餘里 山之上 有潭 日闔門 周八十里 源深流廣 鴨綠混同 愛渾三江出焉... 山之東 有布庫里山 山下有池 曰布爾湖里 相傳 有天女三 長恩古倫 次正古倫 次弗古倫 浴於池 浴畢有神鵲 曰朱果 置委女衣 季女含口中 忽已入腹 遂有身 告二姊曰 吾身重 不能飛昇 奈何 二姊吾等列仙籍 無虞也 此天授爾娠 俟免身來 未晚言已別去 佛(弗의 잘못? ...筆者)庫倫尋產一男 生而能言 體貌奇異 及長 母告以吞朱果有身之故 因命之 曰 汝以愛新覺羅爲姓名 布庫里雍順 天生汝 以定亂國 其往治之

9) 關敬吾：昔話と笑話(東京：岩崎美術社, 1970), pp. 60~61.

10) *Ibid.* p. 58.

11) 大木伸一編譯：シベリアの民俗學(東京：岩崎美術社, 1969), pp. 220~221.

汝順流而往 即其地也 與小舫乘 母遂凌雲去…¹²⁾

8) 北方 에스키모 Eskimo 族

鵝들이 못에서 목욕하고 있는 것을 發見한 한 사나이가 그 깃옷을 한벌 훔쳐 가지고, 그 옷 입자와 결혼한다. 그리고 세월은 흘러 아이 둘을 둔다. 어느 날 남편이 밖에 나간 사이에 아내는 깃털 몇 개를 발견하여 집에 가져와 벽 가죽털 뒤에 숨긴다. 남편이 또 다시 밖에 나가자, 그 깃털을 아이들과 함께 입고 鵝鳥로 변한다. 그리고 떠난다. 남편이 돌아와 아내와 아이들이 없어진 것을 알고 뒤를 쫓는다. 가는 길은 험하였다. 물이 빠진 해변 모래 길을 지나 덩기 짝이 없는 暴炎길을 지나 어떤 몸집 큰 사나이와 만난다. 그 사나이가 木刻으로 물개를 만들어 바다에 넣으면 진짜 물개가 되곤 한다. 그 사나이가 아내 있는 곳으로 안내하겠다고 하여 보트에 태우고 간다. 눈을 감고 있으라 하고 얼마 뒤 어딘가에 닿았다. 이러는 중 두 아이는 아버지가 오는 것을 보고 어머니에게 告하려고 집안에 들어간다. 어머니는 좀처럼 아이들 말을 믿지 않는다. 그러다가 정작 남편이 들어서자 죽은 체한다. 남편은 아내를 안아 날라다가 돌무덤을 만들어 묻는다. 그리고 돌아와 服喪의 표시로 두건을 벗고 있는데, 그의 아내는 다시 일어나 남편이 있는 천막 둘레를 빙빙 돌기 시작한다. 남편은 화김에 창을 들고 그녀를 죽인다. 그랬더니 수많은 鵝鳥떼들이 날아와 그 鵝鳥를 모두 죽였지만, 그 사이에 두 아이는 도망가 버린다.¹³⁾

Ⅲ. 上古時代의 韓・日 接觸

韓日 兩國의 문화적 접촉은 兩國의 地理的 近距離의 條件때문에 그 관계가 빈번했음은 周知의 사실이다. 韓半島의 南海岸으로부터 또는 濟州島・對馬島 혹은 현금의 慶尙南道 東海岸 등지에서 바다로 出漁次 나간 사람들이 때 아닌 暴風雨중에 밀리어 남지나해를 거쳐 北上하는 海流를 타고 東海沿岸의 日本으로 漂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때의 그 漂着地域은 대체로 日本 山陰地方에서부터 中部 日本 地方의 能登半島까지 사이의 연안이었다.¹⁴⁾ 日本側 學者들도 “紀元 前後부터 수세기 동안에 大陸, 특히 韓半島의 新羅에서 日本列島로 流入된 文化에 대하여 두 가지 系統을 생각할 수 있다”고 하고,

12) 孫晉泰: 朝鮮民族說話의 研究, pp. 197~198에서 再引用

13) 皆河宗一譯: アメリカインディアンの民話(東京: 岩崎美術社, 1972), pp. 287~289. # 67. <白鳥の乙女たち> 本文에는 鵝鳥가 등장하나, 이 이야기는 <白鳥處女> 傳說에 속하는 것이어서 이 題名이 붙여졌다.

14) 現今에 와서도 韓國의 漁船이 風浪으로 漂流하다가 닿는 곳이 이 地方에 偏重되어 있음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그 하나는 渡來文化요, 또 다른 하나는 漂着文化라고 할 수 있다. 渡來文化란 韓半島南岸에서 濟州島・對馬島를 거쳐 주로 北九州에 意識的・計劃的으로 운반된 文化를 가리키며, 漂着文化란 同地域에서 對馬海流에 밀리어 長門 Nagato, 石見 Ishimi, 出雲 Izumo 등의 山陰 地方에서 能登 Noto 半島 연안에 걸쳐 漂着하여 偶發的으로 그들 지역의 文化基層을 이룬 것을 지적한다. 그러므로 渡來文化는 환연하면 輸入文化이고 文化의 主流를 이루는 것이지만, 一方 漂着文化는 表面에 나타나지 않고 어디까지나 傍流에 지나지 않으나, 時間的으로는 보다 옛 階層을 형성하는 것이다.¹⁵⁾

라고 하고 있다.

이러한 地政學的인 密着性에 기준하여 兩國의 接觸 樣相을 추측한다는 것은 그 기원을 소급함에 있어서 상당한 上古時代까지도 이를 수 있겠으나, 현재로서는 그 實證的인 것이 殆無함으로,¹⁶⁾ 本章에서는 우선 文獻上의 交涉을 중심으로 다루어 보고자 한다.

兩國의 직접적인 接觸이 文獻上에 나타나는 것으로 먼저 우리의 것을 살펴보면, 「三國史記」卷一 新羅本記 第一 始祖條에,

八年 倭人行兵 欲犯邊 聞始祖有神德乃還

이란 기사에서 처음 그 접촉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서기전 50년에 해당한다. 한편, 中國의 기록인 「後漢書」東夷傳(倭人傳)에 의하면 後漢 光武帝末年(A. D. 57)에는 九州 방면의 倭奴國의 朝貢이, 安帝永初 元年(A. D. 107)에는 倭國王 師升米 等の 奴隸 貢獻이 있었으며, 魏 景初 二年(A. D. 238)에는 邪馬台國女王 卑彌呼가 大夫 難升米등을 帶方郡에 보내어 그곳을 통하여 魏에 朝貢하고, 正始 元年(A. D. 240)에는 帶方郡守 引遵이 朝令에 따라 使節을 倭國에 보내어 卑彌呼를 만나 假倭王을 삼고 金帛・錦綉・刀鏡・采物 등을 선사하였으며, 同 四年(A. D. 243)에는 倭王이 다시 大夫 伊聲耆 등 8명을 보내어 奴隸・倭錦・布・丹木・弓矢등을 獻上하였다. 이와 같은 당시의 漢・倭間 交涉은 역시 朝貢이라는 名稱下에서 행하여졌지마는, 사실에 있어서는 일종의 物物交易을 뜻하였던 것으로 믿어진다. 문제는 그 통로가 樂浪・帶方을 경유하여 中國 본토까지 진출한 것으로 보아 樂浪・帶方과 古代 倭人社會와의 接觸關係는 문헌에 전하는 이상으로 빈번하였음을 쉽게 상상할 수 있다. 이는 近者에 와서 日本 九州地方에서 出土되는 漢魏時代의 金屬具 또는 그러한 것들의 仿製品이 많은 것으로도 긍정할 수가 있다.

다시 일본의 記錄을 살펴보면, 서기전 33년 日本의 崇神天皇 65年 7월에 任那國(大

15) 三上鎮博: 「山陰沿岸の漂着文化」(東アジアの古代文化, 1974, 秋號), pp. 73~74.

16) 三上氏は 前掲 論文에서 이 地方에 散在하는 神社, 그리고 地名 중에서 韓半島와 有關한 것으로 推定되는 것이라 하여 無慮 近 100個의 例를 들고 있다(cf. *ibid*, pp. 73~87).

17) i) 震檀學會: 韓國史 古代編, pp. 205~206.

ii) 江上波夫: 騎馬民族國家(東京: 中央公論社, 1978) pp. 154~73. *Passim*

伽羅) 蘇那曷叱智로 하여금 처음으로 入貢케 하였다는 기록으로 비롯하여 그의 歸國(B. C. 28), 그리고 BC 27년에는(垂仁天皇 3년) 3월에 新羅 王子 天日槍이 玉鉞小刀등을 이끌고 歸化하였다는 說, 다시 훨씬 후대에 내려와 AD 205년 3월(소위 神功皇后 攝政 5년)에 新羅가 使臣을 보내와 入貢하여 葛城襲津彦을 送使로 보내었고, 이어 그가 귀국할 때에 新羅에서 捕虜를 얻어 온 것 등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¹⁸⁾ 물론 이러한 日本側 記錄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수긍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상 三國의 文獻을 뒤져 보아 적어도 서기전부터 韓·日接觸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충분히 認知할 수 있다.

叙上の 문헌상 記錄에 따라 推論할 수 있는 것은 日本의 경우 언제나 受容的 立場에서 大陸文化를 소화하였으리라는 점이다.

新羅는 日本과의 거리가 가장 가까와 政治·軍事·文化上的의 교섭은 매우 빈번하였으면서도 그 傳播 媒介의 구실면에서는 百濟처럼 활기를 띤 것이 아니었던 것 같다. 그러나 고구려와는 그 비교가 안 될 만큼 크게 작용하였다고 보여진다. 新羅와 日本과의 歷史的 關係를 문헌에 의하여 살펴보면, 백제나 고구려에 비하여 결코 뒤지지 않음을 발견할 수가 있다. 「三國史記」에 따르면 紀元 6세기 이전까지만의 關係 기사 중, 신라는 백제의 6회라는 수에 대하여 43회나 되는 7배가 넘는 회수를 나타낸다. 그러나 그 43회 중에서 31회나 되는 대부분이 倭寇事件이다. 나머지는 交誼가 7회, 기타가 5회일 뿐이다. 그런데, 이 시기에 해당하는 「日本書紀」의 기록도 소위 新羅征伐의 내용으로 가득하다(총 12회 關係 중 9회가 征伐). 이러한 사건의 기록만 가지고 兩國關係를 속단하기는 어려운 것이지만, 그러나 부단한 접촉이 있었던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¹⁹⁾

新羅文化로 日本文化 發展에 기여 공헌한 것 중에 우선 造船術을 들 수가 있겠다. 즉, 日王 應神代에 新羅에서는 造船術에 능란한 匠人들을 일본에 보내어 船舶 製造에 종사케 하였으니, 이는 新羅 造船術이 東渡한 嚆矢라 하겠다.

다음으로 꼽을 것은 築堤技術이었으니 日王 仁德代에 渡日한 新羅인들이 茨田提를 築造한 것이 그 좋은 例가 되겠다. 그 밖에 陶器術·醫藥·佛像등을 전하였고 音樂面에 있어서도 백제·고구려와 함께 日本 古代音樂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고, 新羅統一 후에 이르러서는 使者의 빈번한 왕래와 더불어 高僧 碩學 및 각 방면 전문가들의 渡日로 그대로 日本文化에 裨益한 바 적지 않았다. 日本文化의 發展史的 側面에서 본다면, 佛敎가 百濟에 의하여 日本에 전래되고 日本 古代 國家의 體制가 성장하면서 그 후 新羅

18) 日本書紀 卷第九 神功皇后五年條

19) 洪淳昶: 「7~8世紀에 있어서의 新羅와 日本과의 關係」(韓日 古代文化交涉史 研究, 韓日關係研究 學術叢書 第一輯, 乙酉文化社, 1974), p. 27.

法興王 眞興王代の 飛躍的 발전으로 韓半島에서 新羅의 비중이 증대하여 감에 따라 新羅에 대한 관심이 급속히 진전되어 갔으니 이는 日本의 이른바 飛鳥文化란 것이 보다 百濟的인 것에 비하여 白鳳文化란 것이 보다 新羅의 要素가 강하게 나타남에도 알 수 있다. 新羅가 日本에 끼친 문화적 영향은 이렇게 지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日人學者 井上秀雄 같은 이도 “「日本書紀」의 神話・傳說的 구성은 당시의 對新羅 外交를 배경으로 짜여진 것이다.”²⁰⁾ 라고 지적하고 있을 정도이다.

以上과 같은 上古時代의 新羅・日本의 接觸 樣相 중, 本稿를 위하여 관심이 쏠리는 것은 바로 BC 27년에 “新羅王子인 天日槍이 日本으로 歸化”²¹⁾ 하였다는 日本側 記錄이다.²²⁾ ‘古事記’에 의하면 天日矛(天日槍과 같은 뜻)는 新羅의 王子로 늑가에서 낮잠을 자던 女人이 낳은 빨간 구슬을 손에 넣었는데, 그 구슬은 美少女의 變신이었으므로 그와 결혼하였다. 그런데 그는 그 예쁜 아내를 너무 학대하여 아내는 마침내 태어난 나라인 日本으로 도망가 지금 大阪에 있는 神社의 神이 되고 말았다.²³⁾ 아내를 뒤따라간 天日矛는 大阪에서 上陸을 못하고 되돌아서서 東海(日本의 北海) 쪽으로 海岸을 따라 航行하여 但馬(兵庫縣北部)에 닿을 내렸다.²⁴⁾ 이곳에 지금 있는 도요오가(豊岡) 부근의 出石大社(八前大神이 神主)가 이 天日矛를 모시고 있고, 天日矛가 가져온 八種의 神寶를 收藏하고 있다 한다. 그런데 이 天日矛의 但馬까지의 移動 經路가, 播磨에서 難波를 거쳐 宇治川을 거슬러 올라가 近江으로 나아간 듯 하다. 그러다가 이 天日矛族은 후에 다시 若狹(滋賀縣의 北部), 丹波(지금의 京都)를 거쳐 드디어 終着地인 但馬까지 이른 것으로도 日本側 記錄엔 실려 있다.

이 後者의 經路 중, 近江에서 若狹로 향하는 도중에 ‘伊香天女說話’가 탄생한다. 즉 滋賀縣(옛 近江)의 米原에서 福井縣(옛 若狹) 敦賀로 향하는 汽車 沿邊의 左側에 餘呉湖라는 湖水가 있고, 이 地方이 日本에서 傳承되는 ‘羽衣傳說’의 最古型이라고 推定되는 ‘伊香天女說話’의 舞臺인 것이다. 이곳은 有名한 琵琶湖의 北端에서 東北間 3~4 km에 위치한다.

天日矛는 말할 것도 없이 傳說 속의 人物이다. 天日矛의 渡日이 BC 27년이면 赫居世 31년이 되는데 ‘新羅王子’云云의 表現은 좀 納得이 안 간다. 왜냐하면 ‘新羅’라는 國

20) *ibid.*, p. 35.

21) 日人學者들 사이에서도 이 ‘歸化’라는 表現은 적당한 것이 못 된다 하고 ‘渡來’라는 用語를 씀이 合理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2) 日本書紀 卷第六 垂仁天皇 三年條

23) 三國遺事 卷一에 ‘延鳥郎 細鳥女’說話에서는 延鳥郎이 日本에 건너가 王이 되었다는 내용이 展開된다. 八代인 阿達羅王 四年(A.D. 157)의 일이라고 하였은 즉 日本側 記錄과는 差異가 있으나 興味있는 것이 아닐 수 없다.

24) 上田正昭・井上秀雄共編：古代の日本と朝鮮(東京：學生社, 1974), p. 252.

號가 정식으로 決定된 것은 西紀 503年(新羅智證麻立干 4年)의 일이다.²⁵⁾ 그러나 日本學者들이 指摘하듯 3世紀頃에는 古朝鮮, 특히 南部에서의 日本으로 移住한 集團은 상당수에 이른 것같고 그들이 日本에 定住한 후, 그 몇 代인가의 子孫들 중에는 天日矛를 자기네들 先祖라고 칭하는 氏族이 播磨, 但馬를 비롯하여 各地에 存在하였던 모양이다.

그런데 3世紀頃の 日本이란 米作 農業이 盛況을 이룬 彌生文化의 後期後半에 해당한다. 日本의 米農은 우선 BC 3백년頃 北九州地方에 彌生式土器와 함께 발달한 것으로 推定하는데, 그것은 急히 全國적으로 번지고 쌀을 主食으로 하는 食생활로 바뀌었던 듯하다. 이 米作農業의 技術도 韓半島를 거쳐 전하여졌으리란 것은 勿論이다. 그리하여 米作 500年の 日本이 3世紀에 들어서자 이른바 女王 卑彌呼가 登場하는데 그것이 239年の 일이다. 이 당시 北九州 沿岸地方은 海上交通의 中心地였고, 지금의 福岡縣糸島半島 근처로 推定하는 바, 이곳에서 邪馬台國女王 卑彌呼가 使者를 韓半島 여러나라 또는 魏의 洛陽, 帶方郡(高句麗領土인 곳)으로 파견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 地方의 領主인 五十迹手란 者が 항상 자기는 ‘高麗國의 意呂山에 하늘에서 降下한 日矛 後裔’라고 칭하였다는 것이다.²⁶⁾ 그런데 이 ‘意呂山’이 ‘蔚山’일 것이라고 推定되고 있으므로 高麗國이 아니고 新羅의 國內인 것이다.

그러므로 天日矛의 正體를 新羅王子라고 하는 것은 後에 新羅國으로 된 辰韓 諸國의 一豪族의 뜻으로 파악하면 合理的이다. 日人學者에 따르면 이 天日矛族의 移動을 다음과 같이 叙述하고 있다.

九州地方에 五十迹手の 先祖로서 渡日하여, 播磨로 淡路로까지 세력을 뻗어나갔다. 그리하여 5世紀 前後가 되면 但馬를 본거지로 하여 播磨·近江, 그밖에 地方의 天日矛族의 支流를 統轄하여 세력을 구축, 但馬國造, 丹後國造, 但馬海部直, 大和葛城의 當麻氏, 三宅連 등 諸豪族의 始祖가 되었다. 大和朝廷을 지탱하는 大和의 葛城, 尾張氏, 物部氏 등 有力한 豪族과 婚姻을 맺었는데, 그 중 息長宿禰王과 결혼하여 神功皇后를 낳았다고 전하는 葛城之高額比賣는 ‘天日矛族’의 正系(天日矛의 五代孫이라는)比多詞의 딸이다. 大和朝廷의 皇統인 息長宿禰王이 近江에서 세력을 펼친 배경이 있어서라고 이야기되고 있다. 이곳에서의 天日矛族의 경제적인 蓄積을 초래한 生産力과 그 先進的인 技術 水準은 당시의 日本에서 刮目할만 하였으리란 것은 쉽게 이해가 간다.

이 近江에 머물렀던 天日矛族이 但馬로 이동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成務王(?-355)이 도읍을 이 近江으로 옮긴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近江으로의 遷都가 天日矛族을 越前(福井縣의 東北部), 若狹(지금의 福井縣 西部)로, 다시 但馬로 이동하게 된

25) 三國史記 卷第四 新羅本紀 第四 二十二 智證麻立干 四年條

26) 筑前風土記 逸文 懃土郡條

원인이 되었다고 본다.

近江의 天日矛族은 古朝鮮時代에 소를 기르던 民族의 生活習慣을 日本에 移住한 후에도 계속 지니어 소치는 일에 열중하였다. 그런데 당시의 日本人은 아직도 佛敎以前의 시대였으면서도 거의 信仰의으로 牛馬의 屠殺을 싫어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그 고기도 절대로 먹지를 않았다. 그러자 天皇의 궁궐이 近江에 서고, 그 近江朝廷으로 東海, 東山 兩地方으로부터의 往來가 빈번해지고, 따라서 소를 치거나 도살하여 고기를 먹던 近江의 天日矛族은 그 고장에 定着하여 生活하는 것이 곤란해졌다. 그들은 近江을 미련없이 잊고 安住의 處를 구하여 집단적인 이동을 일으킨 것으로 본다.

이 이동 자체의 성격은, 민족적인 違和感을 天日矛族의 住居移動原因으로 파악할 수 있으나, 다른 一方 경제적 生産관계의 필요도 그 이동 원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고 본다. 7-8世紀頃에 행해진 것처럼 執權層의 政治的인 移住 命令으로 關東地方(지금의 東京 근처)으로 강제 移植된 그런 형태는 아니고, 이 경우에는 近江 天日矛族이 自主的으로 安息處를 구하여 但馬로 이동하여 간 것이다.

여담이지만 이러한 韓半島로부터의 日本移住民들은 日本 山間 골짜기까지 파고 들어 물을 끌어 흙을 기름지게 하고 稻作技術을 전하여 주었고, 쌀에서 누룩을 만들어 술을 빚는 기술까지도 전하여 주었으니, 이와 같은 사실은 당시의 先進國이었던 우리 韓半島에서 전하여진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는 사실들이다.

IV. 考察(比較)

이제 우선 두 나라 民譚의 共通點을 살펴보면,

- (1) 선녀가 깃옷을 벗고 목욕한다.
- (2) 인간인 男性이 그 깃옷을 훔치고 선녀를 아내로 맞는다.
- (3) 결혼 후, 몇 명의 아이를 낳는다.
- (4) 선녀는 잃었던 깃옷을 찾아내어 입고 하늘로 돌아간다.
- (5) 남편도 아내의 뒤를 따라 하늘로 간다.

이 공통점은 또한 Swan maidens의 기본적 形式이기도 하다.

“ Girl in swan coat : The hero steals one coat and will give it back to the owner only if she will marry him. The hero marries the girl. The swan-maiden finds her swan coat and flies away.”²⁷⁾

지금 구체적으로 두 나라의 것을 比較해 보면, 그 發端에서 몇 가지 主要 要素가 발

27) Stith Thompson: *The Types of the Folktale* (FFC 74, 1961), pp. 128~9.

전된다.

韓國의 경우, 나뭇꾼이 사냥군에게 쫓기는 사슴을 숨겨 주고, 사슴은 목숨을 건진 사례로서 선녀들이 목욕하는 장소를 알려주어, 그 깃옷을 훔침으로써 하늘에 오르지 못하는 선녀를 아내로 삼으라는 이야기를 해 준다. 이때 아이를 넷 이상 낳기 전에는 절대로 깃옷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禁忌까지 첨부하여 말한다. 이러한 要素는 日本(1)에서도 같다. 이러한 發端은 다름아닌 動物報恩譚으로 시작됨을 뜻한다.

또한 結尾 이후, 즉 남편이 하늘로 따라 올라간 이후에 가서도 두 나라 모두 附加된 이야기가 있다. 그것은 우선 傳播上 빛어진 것으로 보고 싶거니와, 韓國에서는 地上의 母親(혹은 三寸 内外)가 그리워서 내려왔다가 실수로 다시는 오르지 못하고 죽어서 수탉이 되어버렸다는 悲劇을 그리고 있다. 日本의 경우 하늘에 오른 남편이 반드시 幸福한 나날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地方傳承에 따라서는 天上에서도 각각 헤어져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괴로움을 안고 있다. 전우·직녀의 설화도 이 民譚에서 發展된 것으로 믿어진다.

이야기의 展開에 따라서 몇 가지의 에피소우드 中心으로 두 나라 民譚을 살펴본다.

① 남자 주인공의 身分: 먼저 선녀를 탐내는 인간 주인공의 신분을 보면 거의라고 할 만큼, 장가를 들지 못할 정도로 가난한 젊은이들이다. 그 생업도 <나뭇꾼>을 비롯하여, <어부>(日本의 유일한 例)들이다. 이점은 中國이나 蒙古의 경우도 비슷하여 前者가 <牧童>, 後者는 <사냥군>으로 興味롭다. 따라서 그들이 활동하는 무대는 바다 근처라기보다는 오히려 森林地帶—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그 住居의 터전이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추측은 우선 이 民譚이 海洋을 무대로서가 아니라, 陸地 깊숙한 內陸地方에서 發生하였을 可能性을 추정케 한다. 보르네오, 뉴 헤브리데스 같은 섬에서조차 선녀와 맞부딪치는 곳이 늘 개울이고, 남자 주인공의 生業이란 것이 감자를 재배하는 耕作地에 그 근거를 두고 있음에 注目한다. 補助資料까지 모두가 선녀의 목욕 장소로서 연못, 호수, 강가, 개울 등으로 모두가 바다와는 우선 관계가 먼 곳에 위치하고 있음이 이 民譚의 특징으로 나타난다. (日本의 경우 傳承에 따라서는 ‘바닷가’도 있는 모양이나 이는 변이를 일으킨 것으로 보는 편이 合理的이다). 이러한 근거는 선녀를 발견하는데 도움을 주는 動物名에서도 역시 발견된다. 韓國의 사슴·노루, 日本의 사슴·너구리, 中國의 물소, 보르네오에서는 개미·새·멧돼지·원숭이·물고기(바닷물고기가 아닌 淡水魚)등이 그 좋은 例다. 이 점에서도 이 民譚의 근원지를 우선 內陸地方, 그것도 등장하는 주인공이 나뭇꾼이나 사냥군이라는 점에서 北方地域이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을 자아내거니와, 極北이라기보다는 적어도 목욕을 할 수 있는 氣候를 지니고 있는 그러한 高장을 前提로 하고 싶다. 이야기가 地域에 따라 變異를 일으킬 때 蒙古와 같은 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할 것이다.

② 禁忌 : 남자 주인공에게 도움을 주는 動物들은 단순히 선녀가 있는 장소만을 가리켜 주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에게 상당한 比重을 지니고 작용하고 있으니 특히 지켜야 할 禁忌를 설정하여 준다. 즉 선녀와 결혼하더라도 절대로 감추어 둔 깃옷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이 禁忌는 呪力の 再生을 막는 구실을 하고 있음이 特徵的이다. 一般的으로는 禁忌는 ‘우렁이와 젊은이’에서처럼 ‘목욕 중에는 절대로 엿보지 말아 달라’는 아내의 부탁인 禁忌를 어겼기 때문에 자기의 正體가 드러나 그냥 바다로 들어가고 마는 결말을 가져오듯이, 呪力の 消滅을 招來케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여기 ‘선녀와 나뭇꾼’의 경우는 禁忌를 지킴으로써 영원히 선녀는 地上에 머물게 될 것을, 禁忌를 깨뜨림으로써 仙女에게는 呪力—하늘로 오르는—을 再生시켜 준 결과가 된 것이다. 그런데 이 禁忌의 깨뜨림은 類話마다 약간의 出入이 있다. 韓國에서는 아이 넷을 낳기 전엔 지켜야 할 것을 아이 셋을 낳고 깨뜨렸고, 日本에서는 出生하는 아이 수와는 관계없이 그 아이들의 자장가 노래에서 깃옷을 되찾는 계기가 이루어진다. 補助資料에서 볼 수 있듯이 각 類話마다 그 계기가 다른데 이는 아마 그 傳承民族의 特殊性에 기인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밖에도 인도네시아 *Indonesia*에서는 새의 깃털 태우는 냄새를 피우지 말라.²⁸⁾ 또는 선녀의 머리카락을 뽑아 피가 흐르고 그 피는 天上에 가서야 멎게할 수 있다고 속여 昇天을 한다.²⁹⁾ 독일에서는 시어머니를 졸라서 깃옷을 다시 찾고,³⁰⁾ 西아프리카 *Africa*에서는 새가 아니고 羚羊의 化身인데 여기서는 그 毛皮가 呪具인 바, 남편이 비밀을 안 지켜 도망을 간다.³¹⁾ 韓國(1)에는 제 2의 禁忌가 따른다.

③ 登場動物들의 報恩 : 韓國에서 사슴의 報恩은 선녀와 인연을 맺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나뭇꾼이 선녀를 잃은 뒤에도 한 번 더 報恩의 기회를 가진다. ‘선녀들이 다시는 목욕하러 내려오지 않고 그 대신 그 물을 두레박으로 天上까지 퍼 올리니 그 두레박을 타고 올라가라’는 귀뿔을 해준다. 이 天上에 오르는 方法을 다시 後述하겠거니와, 日本의 경우는 이 두번째 報恩 모티브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런데 韓國의 이 2次 報恩은 中國에서 發見되어 흥미롭다. 물소가 배푸는 報恩은 선녀에게 목동을 인권하고, 다시 仙女의 뒤를 따라 하늘로 올라갈 수 있도록 呪力을 갖춘 가죽 주머니, 모래, 끈을 준비하여 준다. 이런 呪具의 힘을 빌어 남편은 하늘에 올라갈 수 있었고, 비록 함께 살지는 못하게 되었으나 하늘 이쪽 저쪽에서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되었다. 이에 比하면 보르네오의 경우엔 動物들의 報恩 시기가 훨씬 뒤로 미루어져 있다. 즉 선녀를 발견하는 것은 순전히 우연에 속하는 것이고 이들 動物의 주선은 아니다. 훨씬

28) 小澤俊夫編譯 : 世界の民話 10. p. 343. # 90, 〈ジャウ島の首長ビキビキ〉

29) *ibid.*, p. 319, #86 〈ママスアアとウランメンドウ〉

30) 小澤俊夫編譯 : 世界の民話 1, p. 28. # 5 〈七羽の鳩〉

31) 小澤俊夫編(中山淳子譯) : 世界の民話 7, p. 319. # 46. 〈かもしか女房〉

센 후에 없어진 아내를 찾아 天上까지 갔을 때, 丈母되는 사람이 내놓는 몇 가지 어려운 課題를 앞에 놓고 찢찢매고 있을 때에야 이 動物(개미・멧돼지・원숭이・물고기)들이 등장, 각기 지닌 技力으로 문제를 쉽게 해결시켜 준다. 그러나 끝내 선녀와 헤어지게 되는 남편을 함께 살도록 도와주지는 못 한다.

④ 天上에서 내린 仙女의 數와, 그 異型: 韓國에서는 八仙女가 내려와 목욕을 하다가 한 선녀가 나뭇꾼에게 붙잡힌다. 그런데 日本에서는 그 수가 일정하지가 않다. 1명에서³²⁾ 8명까지로 다양한 분포를 나타낸다. 그 중 '伊香天女說話'에서는 8명의 仙女로 나타나고 이 說話가 日本에서도 가장 오래된 古型³³⁾으로 추정되어 있음에 주목이 간다. 補助資料에서 보듯, 蒙古・中國을 제외하고는 그 구체적인 수효가 없다. 中國에서는 七仙女로 나타나는 바, 이는 中國인의 '七'이란 숫자에 대한 의식에 근원을 두었다 하겠다. '天地人四時' '陽之正也'로 의식하여 이에서 갖가지 事象에 '七'을 얹어 表象한다. 七音, 七言, 七去, 七星, 七七 등등 枚擧키 어려울 정도여서 여기 '七仙女'도 그 類라 생각된다.

등장하는 선녀의 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 김에 蒙古의 類話에 대하여 言及할 것이 있다. 前掲 資料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蒙古에서는 다른 類話와는 달리 선녀가 아니고 白鶴³⁴⁾이라는 鳥類다. 鶴은 訓으로 '고니' 혹은 '따오기'다. 그러니까 '鳥女'라고 보는 것이 合理的일 것 같다. 사실 이 '鳥女'라는 意識에서 Swan maiden이라는 型이 抽出되었으리라 생각된다. 어쨌든 이 蒙古의 類話에서는 白鶴 세 마리가 내려앉아 그 '깃'을 벗으니 女人들의 모습으로 化한다. 그리고 이 三女人(三白鶴)은 서로 姉妹間으로서 트란스 바이칼 브리아트 *Trans Baikal Buriats* 族이 훗날에 와서 섬기게 되는 天神의 딸이었다. 그들 중 한 마리가 사냥꾼에게 잡히어 六名の 子女를 낳게 되고 그들이 이제 브리아트族의 기원이 되었다³⁵⁾는 것이다. 어쨌든 여기서도 3人(?)의 선녀중 한 선녀가 人間에게 잡히게 된다. 이렇게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의 수는 대체로 單身으로서가 아닌, 반드시 複數의 型으로 나타남을 발견할 수 있다. 여기서 日本(2)의 白鳥가 주목을 끌게 된다.

⑤ 선녀가 地上에서 낳은 子女의 數: 人間의 아내가 된 선녀가 地上에서 생활을 하는 사이에 낳은 子女의 수에 대하여 우선 생각해 본다. 전체 資料를 - 瞥 하건대, 子

32) 日本 鹿兒島에서 採錄된 '天人女房'의 題를 가진 이야기는 仙女가 1名 등장할 뿐이다.

(cf. 永田義直編著: ふるさとの民話(東京: 金園社, 1974), pp. 859~862. <天人女房>)

33) 柳田國男: 昔話と文學(東京: 岩波書店, 1969), pp. 18~20 *Passim*

34) 새(鳥)로 등장하는 類話는 많다. 독일의 '비둘기' 스위스, 시베리아, 인도네시아 등에서는 한결같이 '白鳥'로 나타난다.

35) 孫晉泰: 朝鮮民族說話의 研究 pp. 98~99에서 再引用

女數가 제일 많은 것은 蒙古의 類話이고 모두 6名의 子女를 두고 있다. 뉴 헤브리데스, 보르네오, 安南은 각 1名이어서 가장 적고, 中國이 2名인데 한국은 3名이다. 日本은 一定치 않아 1~3名 이상으로 분포되어 있는 모양이다.³⁶⁾ 제일 많은 수를 나타낸 蒙古의 경우, 前言한 바대로 白鶴이 人間化하여 낳은 이 6名의 子女가 브리아트 *Buriat* 族의 기원이라는 일종의 始祖傳說답게 豊饒를 상징하는, 어쩌면 번성을 予示하는 구실을 하고 있음에 그럴 법한 數字로 보고 싶다. 문제는 韓國과 日本의 相異點이다. 韓國의 3名이란 數字는 日本에도 地域에 따라 그대로 一致 내지 共通으로 나타난다. 韓國의 경우 3名으로 고정된 이유로서는 ‘사슴’의 助言이 생각난다. “넷 이상의 자녀를 두기 전엔 결코 깃옷을 보이지 마라” 즉 子女가 셋일 때에는 한 아이는 등에 두 아이는 한 팔에 한 아이씩 안고 능히 하늘에 오를 수 있으나, 넷이 되면 나머지 한 아이는 어찌할 수 없게 되어 결국 하늘에 올라가기를 단념하고 地上에서의 생활이 계속된다는 뜻일 것이다. 그런데, 이 셋(3)이라는 숫자는 따지고 보면 韓國人이 즐기는 숫자이기도 하다. 그 숫자를 가지고 선녀가 하늘로 오를 때에 함께 데리고 갈 수 있는 아이의 수효와 맞춘 것일 게다. 왜냐하면, 선녀에게 呪具만 갖추어지면 아이의 寡多가 문제되지 않는 양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子女의 數와 더불어 흥미를 돌구는 것은, 그 아이들을 함께 거느리고 오르는 型과, 地上에 버려둔 채 가는 型으로의 두 가지가 있다는 점이다. 前者의 型은 韓國·日本(日本의 兩型 모두 存在)·뉴 헤브리데스이고, 後者의 型으로는 蒙古·中國·安南·보르네오, 그리고 日本의 (2)다. 그러나 後者의 경우 中國과 보르네오는 후에 부친과 함께 다시 떨어지고 만다. 이에 地上에 남는 경우는 蒙古나 日本(2)에서처럼, 어느 始祖傳說의 機能을 갖추기 위한 것이어서 말할 것도 없다.

⑥ 남편들의 昇天 方法: 대체로(蒙古·日本(2)는 例外) 선녀를 아내로 맞이했던 人間, 남편은 자기 아내를 따라 하늘로 오른다. 그런데 그 올라가는 方法, 그리고 하늘에 올라간 직후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형편이 각기 다르다. 그리하여 地上으로 돌아오는 경우(결국 아내와 헤어짐을 뜻함) 또는 天上에서 다시 헤어져 1년에 한 번씩 만나게 되는 이른바 七夕說話의 形式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다.

여기서는 남편들이 어떤 方法으로 하늘로 오르는가를 살펴 본다. 韓國의 경우, 다시 ‘사슴’의 助言을 따라 後日 선녀들이 목욕하던 곳에 가 보니 과연 하늘에서 ‘두레박’이 내려져 있어, 그 물을 쏟고 자기가 두레박 속에 들어가 하늘로 오른다.³⁷⁾ ‘두레박’이 내려진 까닭은 선녀들이 목욕하려 地上에 내려갔다가 그 중 한 선녀가 ‘깃옷’을 빼앗겨 地上에 머무르게 된 不祥事(?)가 생겨, 그 후로는 두레박으로 그 물을 길어 올려 天上에서 목욕을 하도록 바뀌었다는 것이다.

36) 日本에서 가장 古型이라고 推定되는 上掲 日本(2)에는 4명이다.

그런데, 日本에서는 '나막신을 천 켈레, 짚신을 천 켈레 모아 묻고 거기에 대나무를 심고 3년 지내면 하늘까지 닿는다. 그 대나무를 타고 하늘에 오를 수 있다' 라는 종이쪽지를 발견하고 (하늘에 오른 선녀가 적은 것인지 어떤 다른 神의 도움인지는 分明하지 않다) 시킨대로 하는데 나막신 짚신을 999 켈레밖에 모으지 못했으나, 모자라는 대로 그냥 묻고 거기에 대나무를 심는다. 3년 후에 그 대나무를 타고 오르는데, 거의 닿을 정도에서 이르지 못한다. 그때 天上에서 배를 짜고 있던 仙女가 복을 내밀어 이끌어 주어서 간신히 오른다. 그러니까 日本의 경우, 먼저 하늘에 오른 선녀, 즉 아내의 도움없이는 天上에 이르지 못했다는 이야기다.

전체 資料를 대상으로 할 때에 天上世界의 意識은 水平과 垂直의 兩方向임이 드러나는데, 前者에 속하는 것으로 보르네오만이 유독 이 例에 든다. 나머지는 한결같이 垂直의 위 (머리 위)에 그 세계를 의식하고 있다. 日本과 뉴헤브리데스에서는 一次的으로 남편의 意志에 의하여 하늘로의 昇天이 試圖되고 결정적 단계에 이르르면 비로소 북・나무뿌리 등이 내려져(아내의 도움) 하늘에 도달한다. 그러나 우리 韓國만은 오히려 하늘에서 내린 '두레박'을 이용한다는 점이 特異하다. 또한 昇天하는데 必要로 하는 精力의 消耗가 발견되지 않는다.

⑦ 天上에서의 남편의 生活 : 갖가지 방법을 통하여 天上에 이른 남편이 겪는 여러가지 逆境이 있다. 그러나 韓國의 경우는 天上에서의 逆境은 없다. 韓國의 남편은 天上의 아내를 찾아가 幸福하게 산다.³⁷⁾ 그러나 地上에 두고 온 老母가 그리워 만나 보고 싶어 한다. 결국 아내의 도움으로 龍馬를 타고 내려오는데, 여기 또 새로운 禁忌(제 2의 禁忌)가 介在한다. 즉, 龍馬에서 내리면 다시는 昇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도 그리워하던 老母를 만나고도 말에서 내리지를 못한다. 老母는 老母대로 그림던 아들을 만나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이 팔죽(혹은 호박죽) 생각이 났다. 부랴 부랴 끓여준 죽을 말에 탄 채 먹는 아들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뜨거운 죽 몇 방울이 잘못 흘러 말의 등에 떨어지는 순간, 말은 뜨거움에 놀라 虛空으로 경총 뛰었고, 그 순간 이 사나이는 落馬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禁忌를 깬 결과가 되었고, 말은 하늘로 오르고 홀로 地上에 남게 되었다. 그리고는 하늘

37) 1919 (三輪 環), 1929 (中村亮平)年 즈음에 韓國에서 採錄된 것 중에는 남편이 산에 있다가 토끼의 싸움을 말려주고 그 사례로서 하늘에 닿는 나무의 씨를 얻어다가 심고, 자란 후에 그 나무를 타고 올랐다고 한다. 이 要素는 매우 중요하다. 즉 얼마전까지만 해도 이런 모티브가 개입된 것으로 한국에서도 전승되었을 것으로 파악하여야 하며, 이 모티브가 바로 日本에 건너가 전승되고 있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또한 1981. 8에 채록한 강화군 길상에서도 같은 모티브가 발견되고, 天上에서의 과제 시련도 그대로 전승되고 있다.

38) 任東權 : 韓國의 民譚 (서울 : 瑞文堂, 1972), p. 24 # 60 <사슴을 구해준 총각>에서는 이것으로 大團圓을 이룬다.

에 두고 온 妻子가 그리워 하늘만을 쳐다보며 一生을 마쳤다. 그래도 恨을 못 풀어 수탉으로 태어나 다시 하늘을, 그것도 지붕 위에까지 올라서, 조금이라도 더 하늘이 가까운 곳이라고 생각되는 지붕위까지 올라가서, 지금까지도 ‘꼬꼬오’ 울고 있는 가련한 주인공이 되고 만 것이다. ‘수탉은 왜 지붕 위에 올라가 우는가?’에 대한 說明的 機能을 갖추게 된 것이다.

그러나 日本의 남편은 사정이 다르다. 天上에 오르자 장인뻘 되는 天神으로부터 여러가지 課題를 받는다. “하룻동안에 千町歩의 산을 개간하고, 하룻동안에 그 밭을 일구고,³⁹⁾ 하룻동안에 그 밭에 참외씨를 뿌리고, 하룻동안에 그 익은 참외를 거두어들이라.” 그러나 이 모든 逆境은 선녀아내의 도움으로 모두 해결이 된다. 그러나 최후의 시험이, 그 참외를 놓고 벌어진다. 天神은 ‘참외를 세로 자르고 드러누우라’ 하는데 선녀가 일러주는 눈짓(세로가 아니라 가로 잘라야 한다는)을 잘못 알고 세로로 자른다. 그러자 잔뜩 쌓아 놓은 참외가 모두 갈라지면서 大洪水가 일고 남편도 떠내려 간다. 그 때의 大河가 은하수고 남편은 견우성, 선녀는 직녀성이 되어 그 은하수 양편으로 헤어지고 만다. 두 아이는 직녀성 근처의 별이 되었다. 그날이 七月 七日이어서, 이날만은 두 내외가 만날 수 있게 된다. 즉 七夕說話의 說明機能을 갖추게 되었다. 韓國의 남편이 永遠히 헤어져 버린 것과는 달리 1년에 한번 만난다는 것 자체가 덜 비극적이긴 하다.

以上 몇가지 要素別로 兩國의 이야기를 比較하여 보았는데, 資料의 全般的인 考察에서 千辛萬苦하여 天上까지 아내를 따라갔다가 다시 地上으로 追放되는 것이(韓國은 추방은 아니나 결과적으로 헤어진다는 뜻에서) 韓國・安南(?)・뉴헤브리데스・보르네오이고,⁴⁰⁾ 나머지는 天上에서, 天上에 머물러 있기는 하나 다정하게 한 家庭을 이루지는 못하고 서로 헤어져 있으면서 1년에 한번 만나는(七夕說話)것이 日本과 中國이다. 특이한 것은 日本・보르네오 두 나라는 天上에 오른 남편에게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가 課해지는데, 課題 解決 與否에 관계없이 別居 乃至 追放당한다.

그런데 이 型の 民譚은 대체로 크게 두 方向의 흐름으로 파악된다. 하나는 仙女의 깃옷을 훔쳐 아내로 삼는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天上으로 되돌아 간 아내와 再結合하기 위한 새로운 試練을 克服해야 한다는 것인데, 上記 資料에서는 日本・보르네오 뿐이다.⁴¹⁾ 그런가 하면, 七夕說話로 발전하는 것은 日本・中國이고, 安南은 同軌의 性格을 띠고 있다.

39) 유럽의 독일, 스위스의 類話에서도 天上에 오른 남편이 이와 같은 과제를 받고 있다.(cf. 小澤俊夫編譯: 世界の民話 1. p. 29 # 5 <七羽の鳩>, p. 244 # 57. <豆よ眞つ二つに切つてやるぞ>)

40) 蒙古의 경우는 아예 가지도 않았다. 日本(2)도 마찬가지다.

登場하는 主人公들의 後日譚 形式으로 어느 由來說明的 機能까지 含有시킨 것은 蒙古 韓國이다. 대체적으로 天上에까지 따라온 남편과 幸福하게 살게 된다는 것이 이 型의 元來 모습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 理由로서, 이미 地上에서 이루어진 婚姻이고 子女까지 둔 사이의 夫婦로 하여금, 天上에서 새로이 再結合하는 節次는 蛇足이라 믿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天上에서의 課題 提示는 다른 婚姻譚의 敷衍으로 생각되고, 사실 많은 婚姻譚 중에서 이렇게 難問題를 내걸고 그것을 充足시키거나 解決하였을 때에 大團圓으로 幕을 내리는 경우가 非一非再하다. 실제로 上記 資料 중, 日本・보르네오 동지의 여러 課題는 이 '선녀와 나뭇꾼'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獨立하여 하나의 이야기로 存在할 수 있는 性格을 띠고 있음을 쉽게 肯定할 수가 있다.

V. 結 言

원래 이 '선녀와 나뭇꾼' 이야기는 蒙古 等 北方民族 사이에서 이루어진 '鳥女說話'가 (日本(2)의 경우가 注目된다) 점차 中國으로 移行됨에 따라 道教의 영향을 받아 神仙世界와 관련지어져 '鳥女'는 '仙女'로 그 모습을 바꾸어 가면서 韓國에 傳播된 것이 아니었을까 한다. 上揭 蒙古 類話와 시베리아의 類話(시베리아의 캄차카 *Kamchatka*), 하바로프스크 *Khabarovsk*, 그리고 야크트 *Yakut* 地方에 散在하는 에펜 族에 傳承되고 있음)는 그 發端이 꼭 같음에 놀라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韓國의 北方에 위치한 民族 사이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傳承되어옴을 推測할 수 있고, 그들과 끊임없이 接觸을 지녀 왔던(특히 蒙古 女眞族) 韓國에서 그 영향을 안 받았을 리 없다는 것은 뻔하다.

그리하여 이러한 모습의 이야기가 韓國에 들어왔을 初期에, 日本에 그대로 고스란히 전파되었으므로⁴²⁾(日本(2)의 경우를 이렇게 생각해 본다) 天上界에 오른 후의 여러 試練도 그냥 빠뜨리지 않고 傳承되었으리라 생각된다(이 경우 中國으로부터 傳播된 類話を 그 淵源으로 보고 싶다). 勿論 그 課題의 種類는 다른 것일지도 모르나 이야기의 構成 要素는 그대로였을 것이 짐작이 간다. 그것은 七夕說話까지도 包含하여서의 뜻이다.

41) 그러나 韓國에도 天上에 올라가 아내의 양친으로부터 과제를 받고 모두 해결하자, 마지막으로 地上에 용마를 타고 내려 팔죽장수 할머니를 만나게 하는 문제를 내었는데, 나뭇꾼은 실패하여 다시는 못 올라갔다는 이야기도 있다.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본다 (cf. 崔仁鶴 : 韓國昔話의研究, p. 225).

42) 日本의 神田秀夫는 이 白鳥處女說話(羽衣傳說)는 外來者와의 接觸에서 생겨난 것이라고 分明히 단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韓半島의 東南地方을 그 根源地로 推定하고 있다. (cf. 日本文化と朝鮮, pp. 144~160 *Passim*)

韓國에서는 中國에서 건너온 神仙世界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를 받으면서 日本으로는 變異가 일어나기 전의 모습으로 전파가 이루어지고(兩國의 不斷한 接觸으로), 한편 韓國에서는 계속 전파되는 사이에 天上界에서의 試練이 脫落되어버린 形式으로 縮約化되는 대신, 韓國民族의 傳統的 意識인 ‘孝’에 기반을 둔 이야기로 變異하여 끝내는 ‘수탈’의 由來說明으로 바뀐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이는 韓國에는 아직도 地方에 따라서는 天上界 試練을 내용으로 하는 形式이 있는 以上,⁴³⁾ 筆者의 推論이 근거 없는 空論은 아니다. 北方民族에게 이 類話의 근거를 두는 것은 前言한 바, 이야기의 舞臺가 언제나 바다와는 멀리 떨어진 嶺·호수·江 등이라는 與件에서이고 이는 上揭 資料에서 쉽게 證明된다 하겠다.

한편, 中國에서 南方으로 전파된 것의 例로 安南의 경우를 생각한다. 中國의 ‘물소가 죽 주머니’에 의하여 呪力이 발휘되어 구름을 타고 오르는 데, 安南 역시 男性의 昇天 方法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呪布’에 의한다. 呪力の 權威가 그대로 계승된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보르네오로, 그리고 뉴 헤브리데스島로 연결지을 수 있는 可能性을 지니고 있다. 언제나 바다와는 떨어진 곳을 무대로 설정함을 잊지 않고 中國의 이야기가 보르네오쯤 가면, 그 動物의 報恩은 뒤의 시련 극복에 총동원되기도 한다.

이제 日本에서의 이 類話의 分布를 提示하고 結論으로 대신하려 한다.

青森 2 岩手 4 秋田 1 宮城 1 山形 1 福島 1 新瀉 1 埼玉 3 長野 2 靜岡 1 愛知 2
岐阜 1 富山 1 三重 1 京都 1 鳥取 1 岡山 1 廣島 4 山口 2 高知 1 德島 3 香川 4
長崎 1 大分 1 熊本 5 鹿兒島 1 喜界島 6 沖繩 4⁴⁴⁾

上記 28 縣(혹은 島)중, 上古時代에서부터 빈번히 接觸하여 실 줄 모르던 高장인, 新瀉 1,⁴⁵⁾ 埼玉 3,⁴⁶⁾ 長野 2, 靜岡 1, 愛知 2, 岐阜 1, 富山 1, 三重 1, 京都 1, 鳥取 1, 岡山 1, 廣島 4, 山口 2, 高知 1, 德島 3, 香川 4, 長崎 1, 大分 1, 熊本 5, 鹿兒島 1 등만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全日本 分布 地域에서 20 個 縣에 달하며, 그 중에서 韓國에서 近距離인 山口, 瀨戶內海 沿岸에 偏重하여 있음은 무엇을 뜻함인가?

끝으로 이 民譚은 再言하지만 北方民族에게 그 근원을 두는 것으로 推論을 내리는 根據로서, 淸 太祖說話는 사실에 있어 시베리아 傳承의 變異로 보고 싶고, 또한 미국 에스키모族의 傳承도 따지고 보면 前記 캄차카地方에 傳承되던 것이 베링 海峽을 건너 그네들 部族에 전파된 것이 아닌가 推定하나, 아직 速斷이다.

43) cf. 註 37.

44) Ikeda Hiroko : *A Type and Motif Index of Japanese Folk Literature* (FFC 209, 1971) p. 96 #400 <The Manon a Quest for his Lost Celestial wife>

45) 日本의 北海岸(東海)이란 地理的 與件이 注目이 간다.

46) 前言한 바, 7~8 世紀頃에 政策的으로 關東地方으로 集團 移住시킨 곳이 이 埼玉縣을 中心으로 한 곳이고, 이 곳에는 지금도 ‘高麗神社’ 등이 있다.

參 考 文 獻

三國史記

三國遺事

孫晉泰：朝鮮民族說話의 研究，서울，乙酉文化社，1947

李周洪譯編：中國民譚選，서울，正音社，1975

任東權編著：韓國의 民譚，서울，瑞文堂，1972

趙東一：韓國口碑文學大系 7 - 1，慶北慶州市月城郡篇，韓國精神文化研究院，1980

震檀學會：韓國史，서울，乙酉文化社，1971

崔常壽編著：韓國民間傳說集，서울，通文館，1958

洪淳昶 外一人：韓日古代文化交涉史研究，서울，乙酉文化社，1974

江上波夫：騎馬民族國家，東京，中央公論社，1978

大木伸一譯編：シベリアの民俗學，東京，岩崎美術社，1969

小澤俊夫譯編：世界の民話，1. 7. 10. 東京，ぎょうせい，1978

崔仁鶴：韓國昔話の研究，東京，弘文堂，1979

關敬吾：昔話と笑話，東京，岩崎美術社，1970

孫晉泰：朝鮮の民話，東京，岩崎美術社，1974

永田義直編著：ふるさとの民話，東京，金園社，1974

日本書紀 上「日本古典文學大系 67」，東京，岩波書店，1979

風土記「日本古典文學大系 2」，東京，岩波書店，1979

皆河宗一譯：アメリインディアンの民話，東京，岩崎美術社，1972

柳田國男：昔話と文學，東京，角川書店，1969

Ikeda Hiroko: *A Type and Motif Index of Japanese Folk-Literature* <FFC 209>

1971

Seki Keigo: *Types of Japanese Folktales* (Asian Folklore Studies Vol XXV)

Tokyo, 1966

‘其他 學術誌에서 引用 또는 參考한 것은 省略함’